

## 楚系 《楚公冢鐘》의 斷代와 銘文 研究\*

崔 南 圭\*\*

<目次>

I. 楚系 金文 《楚公冢鐘》	2. ‘敷’과 ‘宥’
II. ‘冢’자와 斷代	3. ‘鐘’
III. 楚系 《楚公冢鐘》의 銘文	IV. 銘文의 비교
1. ‘錫(錫)’	V. 結 論

### I. 楚系 金文 《楚公冢鐘》

金文의 考釋과 斷代에 대한 고증은 銘文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楚系 銘文에 대한 연구는 郭沫若<sup>1)</sup>에 이어, 劉彬徽의 《楚國有銘銅器編年概述》<sup>2)</sup>과 《楚系青銅器研究》<sup>3)</sup>, 李零의 《楚國銅器銘文編年彙釋》<sup>4)</sup>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최근에 발견된 청동기 자료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기물의 형태·文飾·字形·명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斷代와 자형을 고석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 1)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
- 2) 劉彬徽, 《楚國有銘銅器編年概述》, 《古文字研究》 第九輯, 1984年.
- 3) 劉彬徽, 《楚國銘銅器研究》, 湖北教育出版社, 1995年.
- 4) 李零, 《楚國銅器銘文編年彙釋》, 《古文字研究》 第13輯, 1986年.

楚系 《楚公冢鐘》은 현재 발견된 초계 청동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대략 西周 中末期의 것으로 추증된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거나 발견된 楚系 《楚公冢鐘》은 모두 다섯 개가 있다. 그 중 세 개는 日本 京都 泉屋 博古館이 소장하고 있는 《殷周金文集成》의 ‘01.42’·‘01.43’·‘01.44’이며, 하나는 《攷古錄金文》(吳式荼 纂輯)에 탁본만 전해 오고 기물의 행방은 알 수 없는 《殷周金文集成》의 ‘01.45’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1998년 陝西省 岐山縣 周原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 陝西省 周原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다섯 개 《楚公冢鐘》의 내용과 ‘篆間’의 銘文, ‘鼓部’의 紋樣은 아래와 같다.

- ① ‘01.42’: 楚公冢(家)自鑄錫(錫) / 鐘, 孫=(孫孫)子=(子子)其永寶.  
(楚 나라 군주 冢는 훌륭한 종을 만들었다. 자손들은 이를 소중하게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라노라.)
- ② ‘01.43’: 楚公冢(家)自乍(作)寶大 / 敷(林)鐘, 孫子其永寶.  
(楚 나라 군주 冢는 크고 소리 좋은 종을 만들었다. 자손들은 영원히 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바라노라.)
- ③ ‘01.44’: 楚公冢(家)自乍(作)寶大 / 敷(林)鐘, 孫=(孫孫)子=(子子)其永寶.
- ④ ‘01.45’: 楚公冢(家)自乍(作)寶大敷(林) / 鐘, 孫=(孫孫)子=(子子)其永寶.
- ⑤ 周原: 楚公冢(家)自乍(作)寶大尙(林) / 甬鐘, 孫=(孫孫)子=(子子)其永寶.

銘文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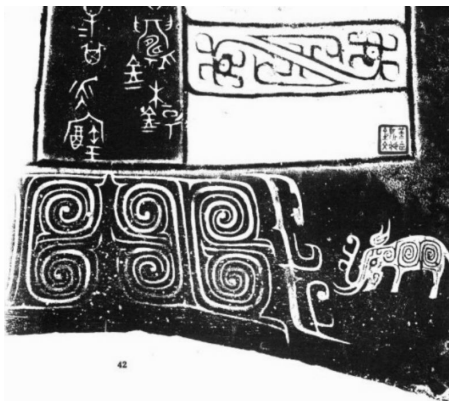
- ① (《集成》01.42) ② (《集成》01.43) ③ (《集成》01.44) ④ (《集成》01.45) ⑤ (1998年 岐山 發見)<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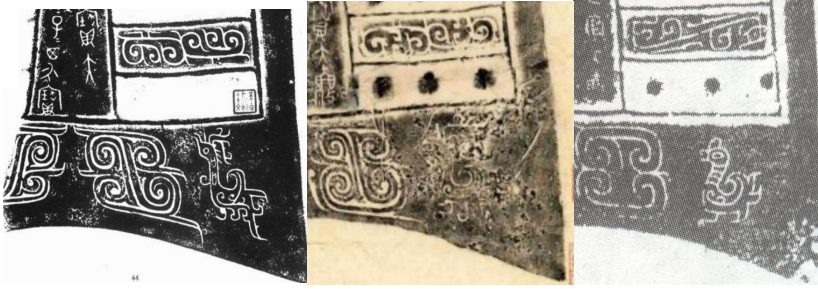
5) 번호 순서는 아래 탁본의 순서를 가리킨다. 器形과 紋飾 역시 마찬가지다.



器形과 紋飾:

- ① (《集成》01.42) ② (《集成》01.43) ③ (《集成》01.44) ④ (《集成》01.45) ⑤ (1998年 陝西省 岐山發見)





본 논문은 《楚公冢鐘》의 斷代와 명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豕’자와 斷代

《楚公冢鐘》의 斷代는 楚公의 이름인 ‘豕(豕)’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豕’가 어느 군주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학자마다 의견이 달랐다. 비교적 중요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郭沫若은 ‘豕’자는 ‘爲’자의 이체자이며, ‘爲’자는 ‘儀’자와 통하고, ‘公冢’는 즉 ‘熊鄂’의 아들인 熊儀라고 주장하였다. ‘熊儀’는 즉 ‘若敖’<sup>6)</sup>로 周宣王 38년에 즉위하여 周平王 7년에 세상을 떠났다.<sup>7)</sup> 곽말약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물은 西周末期の 것이다.

두 번째, 朱德熙 등은 ‘豕’자는 意符가 ‘爪’·‘宀’이고 音符는 ‘豕’ 혹은 ‘至’이며 ‘摯’자와 통하여, ‘楚公’은 ‘熊摯’라고 주장하였다. ‘熊摯’는 周厲王 때의 군주이다.<sup>8)</sup>

세 번째, 張亞初는 ‘豕’자를 ‘家’자의 변체자로 보며, ‘渠’자와 통하여 楚公은 ‘熊渠’이고, 周夷王이나 혹은 周厲王 초기의 기물이라 하였다.<sup>9)</sup>

6) ‘熊’은 성씨이고, 이름은 ‘儀’이며, 호는 若敖.

7)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 165쪽 참고.

8) 朱德熙·裘錫圭·李家浩, 《江陵望山一二號墓竹簡釋文與考釋》, 《江陵望山與沙塚楚墓發掘報告》, 文物出版社, 1996年.

네 번째, 李零은 字件 ‘宀’은 ‘𠂔’으로 쓰기도 하고, ‘𠂔’은 字件 ‘目’과 비슷하며, 字件 ‘家’는 ‘旬’과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는 ‘眴’이고, 楚公은 ‘熊眴’이라 하였다.<sup>10)</sup> ‘熊眴’<sup>11)</sup>은 周 平王 14년에 즉위하여 周 平王 30년에 세상을 떴다. 이 시기는 春秋 初期이다.

다섯 번째, 夏滌는 이 자를 ‘爲’자로 예정하고, ‘爲’자는 ‘惲’자와 통하기 때문에 ‘楚公’은 초나라 成王인 ‘熊惲’이며, 이 기물은 春秋 中期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楚成王은 周 惠王 6년에 즉위하여 46년 간 왕위에 있었다.

周나라와 楚國의 연대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sup>13)</sup> 일반적으로 西周는 前11世紀에서 前771년까지를 말하고, 東周 중 春秋는 前770~前476年, 戰國은 前475~前221年을 가리킨다.<sup>14)</sup>

순서	王名	名稱	재위 기간	연수	비 고
1	楚熊蚤	半蚤			鬻熊, 熊을 성씨로 삼음
2	楚熊麗	半熊麗			
3	楚熊狂	半熊狂			
4	楚熊繹	半熊繹	前1042年~前1006年	37	周武王이 諸侯로 책봉
5	楚熊艾	半熊艾	前1005年~前981年	25	
6	楚熊黜	半熊黜	前980年~前970年	11	
7	楚熊勝	半熊勝	前969年~前946年	24	
8	楚熊楊	半熊楊	前945年~前887年	59	前907年 周夷王(姬燮)元年, 熊錫·熊煬이라고도 함
9	楚熊渠	半熊渠	前886年~前877年	10	前878年 周厲王(姬胡)元年 ● 張亞初의 주장 시기

- 9) 張亞初, 《論楚公冢鐘和楚公逆鑄的年代》, 《江漢考古》, 1984年 第4期.  
 10) 李零, 《楚國銅器銘文編年彙釋》, 《古文字研究》 第13輯, 1986年.  
 11) 半熊眴, 姓은 半이고, 이름은 熊眴이며, 혹은 楚 蚘冒이라고도 하며, 諡號는 楚 厲王이다.  
 12) 夏滌, 《銘文所見楚王名字考》, 《江漢考古》, 1985年 第4期.  
 13) 인터넷 사이트 <http://baike.baidu.com/view/52225.html> 참고.  
 14) 春秋와 戰國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나 잠시 이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10	楚熊摯	半熊摯	前876年	1	熊摯紅이라고도 함 ● 朱德熙의 주장 시기
11	楚熊延	半熊延	前875年~前847年	29	
12	楚熊勇	半熊勇	前846年~前838年	9	前841年 周共和行政 元年
13	楚熊嚴	半熊嚴	前837年~前828年	10	
14	楚熊霜	半熊霜	前827年~前822年	6	前827年 周宣王靜 元年
15	楚熊徇	半熊徇	前821年~前800年	22	
16	楚熊鄂	半熊鄂	前799年~前791年	9	
17	楚若敖	半熊儀	前790年~前764年	27	前781年 周 幽王宮 元年 ● 郭沫若의 주장 시기
18	楚霄敖	半熊坎	前763年~前758年	6	
19	楚厲王	半熊昫	前757年~前741年	17	楚蚡冒이라고도 함 ● 李零의 주장 시기
20	楚武王	半熊通	前740年~前690年	51	前719年 周桓王林 元年 前704年 武王으로 자칭함. 王으로 칭하기 시작
21	楚文王	半熊賁	前689年~前677年	13	前681年 周釐王胡齊 元年
22	楚杜敖	半熊艱	前676年~前672年	5	前676年 周惠王閔 元年 堵敖이라고도 함
23	楚成王	半熊暉	前671年~前626年	46	前651年 周襄王鄭元年 ● 夏滌의 주장 시기
24	楚穆王	半商臣	前625年~前614年	12	前618年 周頃王壬臣 元年
25	楚莊王	半侶	前613年~前591年	23	前606年 周定王瑜 元年, 또 다른 이름은 旅이고, 春秋五 霸 중의 하나

《楚公冢鐘》은 ‘𠄎(𠄎)’자는 이외에도 ‘𠄎’·‘𠄎’·‘𠄎’으로 쓰고, 《楚公冢戈》는 ‘𠄎’으로 쓴다. 《金文編》은 ‘𠄎(𠄎)’자를 ‘0441 冢’에서 “張振林謂其音義如嫁。長沙出土楚帛書有冢女取臣妾，與秦簡日書之取婦家女和取妻嫁女同意。(張振林은 이 자의 음과 뜻은 ‘嫁’와 같더라 하였다. 長沙에서 출토된 楚帛書에 ‘冢女取臣妾(딸을 시집보내고, 노예를 구하다)’<sup>15)</sup>라는 구

15) ‘臣妾’은 노예를 가리킨다. 男子 노예를 ‘臣’이라 하고, 여자 노비를 ‘妾’이라

절이 있는데, 秦簡<日書>의 ‘取婦家女(며느리를 맞이하고 딸을 시집보내다)’·‘取妻嫁女(처를 구하고 딸을 시집보내다)’와 같은 의미이다.”라 설명하였다.<sup>16)</sup>

《楚系金文彙編》은 ‘冢’자를 ‘豕’로 예정하고 ‘家’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sup>17)</sup>

《楚系簡帛文字編》은 ‘家’자의 이체자를 네 종류로 분류하고, ‘家’·‘嫁’의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첫째는 ‘家’로 예정할 수 있고, 자형은 ‘冢’(《郭店楚簡·唐虞之道》)·‘冢’(《上博楚簡·紂衣》) 등이 있다.

두 번째는 ‘豕’로 예정할 수 있고, 자형은 ‘豕’(《包山楚簡》)·‘豕’(《包山楚簡》)·‘豕’(《郭店楚簡·老子乙》)·‘豕’(《上博楚簡·從政乙》)·‘豕’(《九店楚簡56號》)·‘豕’(《楚帛書》) 등이 있다.

세 번째는 ‘冢’자로 예정할 수 있고, 자형은 ‘冢’(《郭店楚簡·五行》) 등이 있다.

네 번째는 ‘豕’자로 예정할 수 있고, 자형은 ‘豕’(《望山楚簡》) 등이 있다.<sup>19)</sup>

劉信芳은 “包山簡筮占記錄屢見‘保豕’，或釋‘豕’爲‘著’，恐非達詁。楚帛書‘豕女’，睡虎地秦簡《日書》作‘家女’，即嫁女。……‘豕’字又用作人名，習見，不舉例。‘豕’可以認作《說文》‘家’之異體。(《包山楚簡》에서 짐복을 기록한 내용 중에 ‘保豕’란 용어가 자주 보인다. ‘豕’자를 ‘著’로 해석하기도 하나 아마 정확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楚帛書 중의 ‘豕女’를 《睡虎地秦簡·日書》는 ‘家女’로 쓰며, 이는 ‘시집가다(嫁女)’의 의미이다. ……‘豕’는 사람

한다. 《書·費誓》은 「逾垣墻，竊馬牛，誘臣妾，汝則有常刑。」라 했다. 혹은 신하를 가리키기도 한다.

16) 《金文編》，177쪽 참고.

17) 劉彬徽等著，《楚系金文彙編》(湖北教育出版社)，38-43쪽.

18) 《楚系簡帛文字編》，678-680쪽 참고.

19) 《楚系簡帛文字編》은 “豕之異體，讀爲著。(‘豕’자의 이체자이며, ‘著(시초 시, shi)’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680쪽).

의 이름으로 자주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지 않겠다. ‘豕’는 《說文》 중의 ‘家’자의 異體字이다”라 하였다.<sup>20)</sup>

楚簡에서 ‘豕’자는 ‘家’자의 이체자로 쓰이며, ‘嫁’의 의미로 쓰인다. 본 ‘豕’자 역시 ‘家’의 이체자이다. 《說文解字》는 ‘廡(家)’에 대하여 “居也。從宀，豕省聲。廡古文家。(‘거주지’. 字件 ‘宀’와 ‘豕’의 일부를 생략한 자건 이 聲符인 형성자. ‘家’자의 고문은 ‘廡(豕)’으로 쓴다)”이라 하고 음은 ‘古牙切’이며, ‘渠(渠)’자는 “水所居。從水，渠省聲(도랑의 의미. 자건 ‘水’와 ‘渠’ 중 일부가 생략된 형태가 성부인 형성자)”라 설명하고 음은 ‘疆魚切’이다. 또한 ‘豨(豨)’자에 대하여 “牡豕也。從豕段聲(숫돼지. 字件 ‘豕’와 ‘段’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설명하고 음은 ‘古牙切’이며, ‘巨(巨)’자에 대하여 “規巨也。從工，象手持之。巨古文巨。籀巨或從木·矢。矢者，其中正也。(‘巨’는 ‘굽자’의 의미. 자건 ‘工’과 손에 ‘丩’은 손에 들고 있는 굽자의 모양이다. ‘巨’자의 고문은 ‘巨’으로 쓰거나 혹은 字件 ‘木’과 ‘矢’을 사용하여 ‘渠(渠)’으로 쓴다. ‘矢’는 ‘바르다(中正)’라는 뜻이다)”라 설명하고 음은 ‘其呂切’이다.<sup>21)</sup> 따라서 ‘渠’자의 기본 聲符는 ‘巨’이다.

家 kav/ka(麻二); kav/kia(麻三)	魚部開二
渠 kjx/kio(魚)	魚部開三 <sup>22)</sup>

위의古音은 周法高의 擬音이다. 聲母는 모두 ‘見’紐이고, 운모는 ‘魚’部에 속한다. 따라서 음성상 서로 통한다. 이외에도 청동기의 모양과 양식, 명문의 형태로 보아(‘IV 銘文의 비교’ 참고) 《楚公豕鐘》은 楚公 ‘熊渠’ 시기의 것이다.<sup>23)</sup>

20) <包山楚簡近似之字辨析>(《考古與文物》, 1996年 第二期), 《古文字詁林》第六卷, 756쪽, 재인용.

21)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647쪽 참고.

22) 周法高, 《周法高上古音韻表》, 28쪽, 29쪽 참고.

23) 劉彬徽, 《楚系青銅器銘文編年考述》, 287쪽 참고.

## III. 楚系 《楚公冢鐘》의 銘文

다섯 개의 《楚公冢鐘》 銘文이 모두 같은 것만은 아니다. 본 장에서는 考釋 상 비교적 논의가 되고 있는 몇몇 명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錫(錫)’

‘1-①’에 𨾏(錫)자가 있다. 이 자는 字件 ‘金’과 ‘易’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기본 聲符는 ‘易’이다.

‘錫’자를 《金文編》은 <附錄下>‘562’(1264 쪽)에 수록하고 있다. 于省吾는 “錫系錫的繁體字……錫系良銅, 以良銅鑄鐘, 故稱之謂錫(‘錫’자는 ‘錫’자의 繁體字이다. ……‘錫’자는 질 좋은 청동이라는 의미이다. 질 좋은 銅으로 종을 만들기 때문에 ‘錫’이라 하였다)”라 설명하고 있다.<sup>24)</sup> 《金文編》은 ‘1579 易’에서 《匜侯舞易器》의 ‘孚’자에 대하여 “孳乳爲錫.(‘易’자는 ‘錫’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5)</sup> 《廣雅·釋器》는 “赤銅謂之錫”라고 설명하고, 王念孫《廣雅疏證》은 “此訓錫爲赤銅, 與毛鄭異義, 或本於三家與?(‘錫’의 赤銅이란 설명은 毛氏傳과 鄭玄의 설명이 다르다. 아마 三家詩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 설명하였다.

《楚公冢鐘》에서 ‘鐘’자는 ‘錫(錫)’ 이외에도 ‘大敷(林)’·‘大直龠’와 함께 쓰인다. 陳雙新은 <樂器銘文“龠”·“協”·“錫”·“雷”·“霸”釋義>에서 ‘錫鐘’이라는 용어는 西周時期的 銘文에서 보이고, ‘中翰且揚’<sup>26)</sup>이라는 명문은 춘추전국시기의 청동기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錫(錫)’·‘敷(林)’과 ‘龠’는 모두 종소리를 형용하는 수식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鄒英都是 《楚

24) 于省吾, 《讀金文札記五則》, 《考古》, 1966年, 第2期.

25) 《金文編》, 666쪽 참고.

26) 《沈儿鐘》은 “佳(唯)正月初吉丁亥, 徐王庚之淑子沈儿, 擇其吉金, 自作龠鐘. 中翰且揚, 元鳴孔皇”으로 쓴다. ‘翰’은 ‘翰音’으로 ‘새의 울음이 하늘까지 멀리 울려 퍼진다’는 의미.

系銘文綜合研究》에서 陳雙新의 주장에 따라 ‘龠’는 ‘和’와 통하며 ‘協’의 의미이고, ‘敷(林)’·‘畎’는 ‘龠’과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鐘聲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28)</sup>

‘錫(錫)’은 음이 ‘𩇛’·‘𩇛’·‘錫’과 ‘皇’자와 통하기 때문에, 《王孫遺者鐘》“𩇛𩇛𩇛𩇛”·《沈兒鐘》“皇皇熙熙”·《邵王子鐘》“𩇛𩇛熙熙” 구절 중의 ‘𩇛𩇛’·‘𩇛𩇛’·‘皇皇’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한다. 《爾雅》는 “𩇛𩇛, 樂也(‘𩇛𩇛’의 악기소리)”라 했고, 郭璞은 “鐘鼓音(종이나 북 소리)” 설명하였다.

금문에서 자주 쓰이는 ‘易(易)’자는 ‘飛揚(날아오르다)’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sup>29)</sup> ‘易’자를 《王孫鐘》은 ‘𩇛’으로, 《楚王禽章戈》는 ‘𩇛’으로, 《禽章作曾侯乙鐘》은 ‘𩇛’ 쓴다.<sup>30)</sup> 즉 이 자는 字件 ‘扌’와 ‘易’으로 이루어진 자이며 ‘扌’로 예정할 수 있고, ‘易’·‘揚’의 이체자이다. ‘𩇛’자 중의 字件 ‘木’은 ‘扌’의 변형이거나 혹은 바람에 날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깃발(扌)이나 깃발을 매는 ‘木’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 ‘鐘’과 관련이 있기 ‘金’을 추가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𩇛’자를 ‘鉢(鉢)’와 ‘錫’ 두 자가 합쳐진 합문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위치나 문맥의 전후 관계로 보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 자 역시 字件 ‘木(禾)’·‘金’과 ‘易’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錫’자의 이체자이다.<sup>31)</sup>

## 2. ‘敷’과 ‘畎’

‘1-①’의 ‘𩇛(龠)’, ‘1-③’(《集成》44)의 ‘𩇛(龠)’, ‘1-④’(《集成》45)의 ‘𩇛(龠)’자를 일반적으로 ‘敷’로 예정하고, ‘1-⑤’의 ‘𩇛’자는 ‘畎’자는 예정

27) 陳雙新, 《古漢語研究》, 2006年 第1期, 42-43쪽 참고.

28) 《楚系銘文綜合研究》, 29쪽 참고.

29) 金文에서 ‘易’자에 대한 주장은 《古文字詁林》 第八卷, 359-364쪽.

30) 《金文編》, 666쪽 참고.

31) 《楚公家鐘論略》, 羸泉. <http://www.docin.com/p-3842143.html/>

한다. 《金文編》은 ‘0971 罇’의 ‘罇’(《號弔鐘》)자 아래에서 “說文所無, 卽左傳襄公十九年季武子作林鐘之林之專字.(《說文》에는 보이지 않는 자이다. 이 자는 《左傳·襄公十九年》에서 季武子(季孫宿)가 ‘林鐘’을 만들었다 중의 ‘林’자의 전용 문자이다)”라 설명하였다.<sup>32)</sup> ‘罇(罇)’·‘罇(罇)’·‘罇(罇)’자와 ‘罇’자는 모두 ‘罇(罇)’자의 이체자이다.

陳初生の 《金文常用字典》은 “甲骨文有罇字, 于省吾以爲廩之初文. 罇爲倉廩之象形, 秝示禾稼. 金文以林, 陳抗以爲乃“意符訛變爲聲符. 或增意符支·卩, 或又增泉, 其義不詳. 銘文多借用爲音律‘林鐘’之林, 便增意符金作罇·鑿, 從金者當爲林鐘之專字.(于省吾는 甲骨文의 ‘罇’자는 ‘廩’자의 초기 형태라 하였다. ‘罇’는 창고의 모양이고, 字件 ‘秝’은 농작물을 나타낸다. 陳抗은 金文에서 字件 ‘林’은 “원래 의미를 나타내는 意符이었는데 후에 음성을 표시하는 聲符로 변하였다”라 하였다. 후에 의미를 표시하는 字件 ‘支’·‘卩’가 추가되기도 한다. 혹은 字件 ‘泉’을 추가하여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 자는 銘文에서 音律 ‘林鐘’ 중의 ‘林’의 의미로 쓰며, 意符 ‘金’을 추가하여 ‘罇’·‘鑿’으로 쓰는 자는 전문적으로 ‘林鐘’ 중의 ‘林’자이다”라 하였다.<sup>33)</sup>

王念孫의 《廣雅疏證》은 《廣雅·釋詁》의 “林, 衆也.(‘林’자는 ‘많다(衆)’의 의미)에 대하여 ”《周語》: ‘林鐘, 和展百事, 俾莫不任肅純恪也.’ 韋昭注云‘林鐘也, 言萬物衆盛也.’《白虎通義》云:‘六月謂之林鐘何? 林者, 衆也. 萬物成熟, 種類衆多也.’(《周語》의 ‘音律 林鐘은 만사가 화통하여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을 의미한다’에 대하여 韋昭는 ‘林鐘은 천하의 만물이 번성함을 말하다’라 설명하였고, 《白虎通義》는 ‘유월을 林鐘이라 하는데, 林는 많다라는 의미이고, 만물이 성숙하여 종류가 많아 짐을 말한다’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4)</sup>

따라서 ‘罇(林)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12가지 音

32) 《金文編》, 410쪽 참고.

33) 《金文常用字典》, 633-634쪽 참고.

34) 《漢語大字典》 재인용, 1165쪽 참고.



編》은 이들 문자 중 ‘𣎵’(《夙》)은 ‘稟’자에, ‘𣎵’(《師夷鐘》)을 ‘𣎵’자에 수록하고 있으나, 형태가 같다. 《金文編》 ‘0971 𣎵’에 수록하고 있는 銘文은 모두 ‘𣎵(稟)’와 같은 자이다. 이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𣎵’이다. 후에 곡식을 상징하는 字件 ‘禾’·‘米’이나 ‘秝(林)’을 추가하거나, 수확을 상징하는 字件 ‘刀’·‘支’를 추가하고, 중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가차되었기 때문에 ‘金’을 추가하여 쓴 것이다. ‘𣎵’자 중의 字件 ‘冫’를 ‘泉’으로 예정하기도 하나, 이 자는 중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도 ‘鐘’을 상징하는 意符인 것으로 보인다.<sup>40)</sup>

林 liəm\liem(侵B); liəm\lim(侵A)      侵部開三  
 𣎵(稟) liəm\liem(侵B); liəm\lim(侵A)      侵部開三

위의 음은 周法高의 古擬音이다.<sup>41)</sup> ‘林’자는 平聲이고, ‘𣎵(稟)’자는 上聲으로 聲調만 다르고 음은 같다. 따라서 음성상 서로 통한다.

### 3. ‘鐘’

‘鐘’자는 금문에 자주 보이는 문자이며, 《楚公冢鐘》은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다.

‘鐘’자를 《楚公冢鐘》 중 ‘1-①’은 𣎵(鐘)’(《集成》0042)으로, 이외에 도 𣎵(鐘)·𣎵(鐘)’(《集成》0043)·𣎵(鐘)’(《集成》0044) 등으로 쓴다. ‘鐘’자는 字件 ‘金’과 ‘童’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며, 금문에서 字件 ‘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𣎵’(《王孫鐘》)·‘鐘’(《南宮乎鐘》)·‘鐘’·‘鐘’(《中義鐘》)·‘鐘’(《克鐘》)·‘鐘’(《多友鼎》)·‘鐘’(《邾公求鐘》)·‘鐘’(《己侯鐘》)·‘鐘’(《昆侖王鐘》)·‘鐘’(《走鐘》)·‘鐘’·‘鐘’(《號弔鐘》)·‘鐘’·‘鐘’·‘鐘’·‘鐘’·‘鐘’·‘鐘’·‘鐘’(《弔

40) 각종 ‘稟’자에 대한 해석은 《古文字詁林》 第5卷, 583쪽 참고.

41) 周法高, 《周法高上古音韻表》, 251쪽 참고.

專父鑑》) 등으로 쓴다.<sup>42)</sup> 모두 ‘鐘’의 이체자이다.

《上博楚簡(七)·君人者何必安哉》은 ‘𠄎’·‘𠄎’로 쓴다.<sup>43)</sup>

#### IV. 銘文의 비교

각 명문의 형태와 포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형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銘文 銅名	楚	公	豕	自	鑄	錫	作	寶	大	數 𠄎	𠄎	鐘	孫	子	其	永	寶
1① 42																	
1② 43																	
1③ 44																	
1④ 45																	
1⑤																	

위 자형을 참고하여 각 銘文과 紋樣의 특징을 귀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楚公豕鐘》의 전체적인 명문의 형태와 포치는 서주초기의 명문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①’에서 ‘④’의 자형과 자형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지

42) 《金文編》, ‘2244 鐘’, 915쪽 참고.

43) 중국사이트, <中國古代簡帛字形詞例數據庫> 참고.

얇은 자연스러운 포치는 《獻簋》와 비슷하며, 양쪽 끝이 뾰족한 露鋒의 필획 모양은 서주 초기의 《德方鼎》의 명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⑤'의 정제된 명문의 배치와 간결한 문체는 서주말기의 《兮甲盤》의 문체를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①'·'②'·'③'·'④'의 풍격은 비슷하고, '⑤'는 다른 독특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명문의 내용은 '①'이 다른 명문에 비하여 '鑄'자와 '錫'자가 더 많고, '②'·'③'·'④'·'⑤'는 '①'에 비하여 '作'·'寶'·'大'·'畝'자가 더 많고, '⑤'은 다른 금문에 비하여 '釁'자가 더 많다. 명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①'과 '②-⑤'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명문 중 '公'자의 형태구조는 '①-④'는 《令簋》'公'의 형태가 비슷하고, '⑤'는 《師酉簋》'公'의 형태구조와 유사하다. '自'자는 '①-④'는 아랫부분이 뾰족한 모양이나, '⑤'만이 타원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作'자 중 '⑤'는 마치 鑄造한 명문이 아니라 후에 칼로 새긴 것과 같은 형태이다. '⑤'의 '畝'자는 다른 자와 달리 가장 기본적인 자부 '畝'만을 쓰고 다른 자부들은 생략하였다. '鐘'·'永'자 역시 '⑤'만이 독특한 형태로 쓰고 있다. 명문의 형태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①-④'와 '⑤'의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가 전체적으로 전자에 비하여 형태 구조적으로 발전된 양상을 띠고 있다.

종의 문양 양식 중 '中鼓'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두 '卷雲'무늬이다. 篆間의 문양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①'은 두 개의 '龍紋'(雙頭龍紋)이 겹치진 형상이고, 나머지는 '雲雷紋'(龍目雷紋)이 두 개 겹친 형상이다. '中鼓'와 '篆間'의 문양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다. '右鼓'부분에 있는 '①'은 코끼리의 형상이고, '②'에서 '⑤'는 모두 '鸞鳥紋'인데, 그중 '②'·'④'는 봉황 중 '鳳'이고, '⑤'는 '鳳'의 형상이다. 즉 전자는 머리 부분과 꼬리부분에 화려한 깃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⑤'는 이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모습을 띠고 있다.

張亞初는 《論楚公冢鐘和楚公逆鎛的年代》에서 종의 형태, 紋樣, 금문의 자형 등의 특색을 참고하여 《楚公冢鐘》은 西周中期的 기물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위의 특색을 살펴볼 때 張亞初의 주장은 따를 만하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개의 종은 모두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⑤’의 세련된 명문과 포치로 보아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상의 다섯 개의 鐘을 文飾, 字體, 銘文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내용	1 組	2 組	3 組
文飾	1-①(1.42)	1-⑤(周原)	1-②(1.43), 1-③(1.44), 1-④(1.45)
字體	1-①(1.42)	1-⑤(周原)	1-②(1.43), 1-③(1.44), 1-④(1.45)
內容	1-①(1.42)	1-⑤(周原)	1-②(1.43), 1-③(1.44), 1-④(1.4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楚公冢鐘》은 당시에 적어도 세 개의 편종을 사용 목적에 따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문자와 문식의 형태 등으로 보아 ‘1 組’는 中原 지역의 어떤 나라에 贈送한 것이고, ‘2 組’는 周 나라에 贈送한 것이며, ‘3 組’는 楚公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 V. 結 論

楚系 《楚公冢鐘》은 현재 발견된 초계 청동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대략 西周 中末期의 것이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거나 발견된 楚系 《楚公冢鐘》은 모두 다섯 개이다. 《楚公冢鐘》의 斷代는 楚公의 이름인 ‘冢(豕)’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楚簡에서 ‘冢’자는 ‘家’자의 이체자로 쓰이고, 본 銘文 ‘冢’ 역시 ‘家’의 이체자이다. 청동기의 모양과 양식, 명문의 형태로 보아 《楚公冢鐘》은 楚公 ‘熊渠’ 시기에 해당된다. ‘冢(豕)’는

44) 《金文文獻集成》 29卷, 106쪽 참고.

字件 ‘金’과 ‘楊’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며, 기본 聲符는 ‘易’이다. ‘龠’·‘敷(林)’과 ‘宀’은 소리를 형용한 수식어로, ‘敷(林)’과 ‘宀’의 음은 ‘龠’과 통하여 두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鐘聲을 나타낸다. 《楚公冢鐘》 다섯 개의 鐘은 文飾, 字體, 銘文의 내용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參考文獻>

- 容庚 編著(1985), 《金文編》, 中華書局.
- 周法高(1973), 《周法高上古音韻表》, 香港中文大學.
- 周法高(1974), 《金文詁林》(全十八冊), 香港中文大學出版, 1974年出版.
- 周法高(1982), 《金文詁林補》(全八冊), 臺灣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七十七, 中央研究院歷史研究所.
- 曹璋(2002), <東周時期的贈賄制度>, 《考古與文物》(3), pp.39-42.
- 曹璋(2002), <西周時期贈賄制度的探討>, 《溫故知新》, 慶祝北京大學考古學專業(系)成立五十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資料彙編.
- 曹璋(2003), <西周時期的贈賄制度>, 中國文物學會 等編, 《商承祚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北京文物出版社, 299-310.
- 曾憲通(1998), <宋代著錄楚公逆鐘銘文補釋>, 《徐中舒先生百年誕辰紀念文集》, 巴蜀書店.
- 張亞初 編著(2001), 《殷周金文集成引得》, 中華書局.
- 劉慶柱·段志洪 主編(2005), 《金文文獻集成》(全四十六冊), 線裝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1984~1994), 《殷周金文集成》(全十八冊),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2001), 《殷周金文集成釋文》(全六卷),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出版.
- 陳初生(1987), 《金文常用字典》, 陝西人文出版社.

- 陳全方(1988),《周原與周文化》,上海人民出版社.
- 陳雙新(2001),〈青銅樂器自名研究〉,《華夏考古》(第3輯),96-104.
- 董珊(2005),〈晉侯墓出土楚公逆鐘銘文新探〉,《中國歷史文物》第6期,67-74.
- 段渝(2004),「楚公逆編鐘與周宣王伐楚」,《社會科學研究》,第2輯,133-139.
- 高至喜(2002),「晉侯墓地出土楚公逆編鐘的幾個問題」,《晉侯墓地出土青銅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上海書畫出版社,346-354.
- 郭沫若(1999),《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上海上海書店出版社.
- 黃錫全·于炳文(1995),〈山西晉侯墓地所出楚公逆鐘銘文初釋〉,《考古》(2),170-178.
- 李曉峰(2006),〈談楚公逆鐘中的“錫”字〉,陶新民主編《古籍研究》,安徽大學出版社,63-64.
- 李學勤(1995),〈試論楚公逆編鐘〉,《文物》(2),69-72.
- 馬承源(1981),《商周青銅雙音鐘》,《考古學報》,第1期.
- 馬承源(1986·1987·1988·1990),《商周青銅器銘文選》(全四冊),文物出版社.
- 劉彬徽(1996),〈楚金文和竹簡的新發現與研究〉,《于省吾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292-269,長春吉林大學出版社.
- 劉彬徽(1995),《楚系青銅器研究》,湖北教育出版社.
- 劉彬徽(2009),《楚系金文彙編》,湖北教育出版社.
- 鄒英都(2007),《楚系銘文綜合研究》,巴蜀書社.
- 劉緒(2002),〈晉侯邦父墓與楚公逆鐘〉,高崇文等主編《長江流域青銅文化研究》,56-60,北京科學出版社.
- 羅西章(1999),〈陝西周原新出土的青銅器〉,《考古》(4),18-21.
- 彭裕商(2003),《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
- 山西省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系(1994),〈天馬——曲村遺址北趙晉侯墓地第四次發掘〉,《文物》(8),4-21.
- 陝西周原考古隊(1981),〈扶風召陳西周建築基址發掘簡報〉,《文物》(3),10-22.

- 王世民(1986), <西周暨春秋戰國時代編鐘銘文的排列形式>, 《中國考古學研究—夏鼐先生考古五十年紀念論文集》(第二集), 106-120, 北京科學出版社.
- 徐天進·張恩賢(2002), <周原考古綜述>, 《吉金鑄國史—周原出土西周青銅器精粹》, 14-25, 北京文物出版社.
- 于省吾(1966), <讀金文筭記五則>, 《考古》(2), 100-104.
- 袁豔玲(2007), <楚公冢鐘與早期楚文化>, 《文物》(3), 50-57.
- 鍾柏生 等(2006),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 臺北藝文印書館.
-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編(2010), 《清華大學藏戰國竹簡》, 中西書局.
- 李守奎 編著(2007),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 作家出版社, 2003年12月.
- 張守中 選集(2000), 《郭店楚簡文字篇》, 文物出版社.
- 張守中 選集(1994), 《睡虎地秦簡文字篇》, 文物出版社.
- 張守中 選集(1996), 《包山楚簡文字篇》, 文物出版社.
- 滕壬生 著(1995), 《楚系簡帛文字篇》, 湖北教育出版社.
- 駢宇騫 編著(2001), 《銀雀山漢簡文字篇》, 文物出版社.
- 陳松長 編著(2001), 《馬王堆簡帛文字篇》, 文物出版社.
- 李零(1986), <楚國銅器銘文編年彙釋>, 《古文字研究》 第13輯.
- 湯可敬(2001),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 <中文提要>

楚公冢鐘是目前所知時代較早的楚器, 在楚系銅器中具有比較重要的位置直得研究。本文對楚公冢鐘的個別銘文提出一些與以往不同的看法、目前有關楚公冢鐘有五種, 通過對傳世及出土的楚公冢鐘的器形、紋飾、字體和銘文內容的分析與綜合考察。從總體上看, 01.43·01.44與1.45可能為一

組，01.42和周原器各屬另外一組。可能當時至少存在3套楚公家的編鐘，它們制作的時間大致相同，器形基本一致，紋飾、字體風格和銘文內容互有關聯。綜合考察，可以推測01.43·01.44與01.45組編鐘可能是楚公家自用之器，周原編鐘則是制作以贈送周人的，01.42組從其紋飾和字體來看，亦有可能是贈送給某國的贈器。

주제어 : 楚公冢鐘, 斷代, 銘文, 楚系青銅器, 銘文